

방문교육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서현주*·김영순**

초 록

본 연구는 방문교육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이 방문교육지도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문화소통을 이루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는 목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위해 방문교육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5명을 1인 2회씩 총 10회 심층 면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중심 주제 분석을 통해 '정체성 갈등', '정체성 안정', '정체성 확장'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 결과는 '존재감 없는 이방인', '불평등한 지원의 대상', '언어와 문화로 스며들', '동등한 관계 맺음', '새로운 나로서 삶', '배움 실천의 사회구성원'으로 도출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방문교육서비스 경험을 통해 모국과 이주국의 문화와 언어가 뒤섞이고 겹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하며 다문화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후속 연구로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적 실천 역할을 발휘하며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도록 이들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정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주여성, 상호문화소통, 정체성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eunice0412@hanmail.net)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kimysoon@inha.ac.kr)

I. 서론

현대 한국 사회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급격한 세계화·지식정보화를 이루며 문화와 경제차원에서 국제교류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국내외 인구 이동 및 이주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한국 내 외국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사회·문화 배경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천혜경, 2022). 이러한 다양성의 변화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다문화사회의 공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봉진영·권경숙, 2013).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주민수는 215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2%이며 결혼이민자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7만 3천 명에 이른다. 그중 결혼이주여성이 79.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22.10.7.). 결혼이주여성은 한시적으로 한국에 머무르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가족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은 입국 전 한국 사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없이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오게 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뿐 아니라 한국 사회화, 가족관계의 어려움, 언어소통의 제약, 건강문제, 지원체계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김미종·김태임·권윤정, 2008). 이러한 문제로 인한 부적응은 결혼이주여성 개인과 사회 요소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개인·사회 영역에서 안정된 정착과정을 거치며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이들을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시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심리·사회적으로 안정된 적응을 이루기 위한 세분화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오성배, 2005).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정체성 형성(손민호·조현영, 2013; 신승혜, 2015; 원진숙, 2010). 둘째,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정체성 형성(김연희·이교일, 2017; 설진배·김소희, 2013). 셋째, 초국적 유대를 통한 정체성 형성(김영순, 2014; 심영희, 2011). 넷째, 경제활동을 통한 정체성 형성(염지숙, 2017; 최인아, 2016). 다섯째, 국가·민족별 결집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춘호·임재완, 2014),

여섯째, 자신의 언어와 문화차이를 자본화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정체성 형성(이정애·최은경, 2019) 등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양한 문화접촉을 통해 상호소통을 시도하며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다문화 가족정책은 2005년 결혼이주여성, 이주자에 대한 체류 안정화 및 생활 안정 대책 필요로 시작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거쳐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정책으로 확대하였다(정신희, 2018).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심리·정서, 교육, 제도 및 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가족 돌봄 서비스의 일환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이 있다.

방문교육서비스는 언어소통이나 문화차이 등의 문제로 한국 이주 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초기 적응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 가족 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봉진영·권경숙, 2013). 결혼이주여성의 방문교육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 및 문화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유용성(이경은·박창재, 2009), 결혼이주여성의 입장과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 및 제도 실행 요구(이귀애, 2016; 이오복, 2019),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교육지원의 필요성(봉진영·권경숙, 2013; 이진경, 2014), 결혼이주여성의 입장과 요구를 반영한 방문교육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응포친, 2013) 등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 결과 방문교육서비스 시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며 초기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제도로써 서비스의 내용 및 지원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서비스 수혜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관점과 요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지원을 주장하였다. 또한 방문교육서비스가 단순한 정책 및 제도의 의미를 넘어 결혼이주여성 및 이들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하며 이들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는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방문교육서비스의 효과와 의미를 밝히는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 복지서비스 정책과 제도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만족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서비스 제공인력인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 및 역량 강화, 수혜당사자의 입장 반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며 방문교육서비스의 긍정적 역할을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교육서비스 수혜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에서 방문교육서비스가 이들의 한국 이주 초기 정착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방문교육지도사와의 상호문화 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경험과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이주 초기에 개인·가정·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정주민 방문교육지도사와 이주민 결혼이주여성 간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한 상호문화 소통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의 경험과 의미를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적이고 평등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공존의 실천적 윤리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족 정책과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개소를 시행하였다. 지원센터는 2006년 전국 시, 군, 구 21개 지역에 개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230개소에 이른다.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쳐 현재의 ‘가족센터’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가족센터의 지원으로 다문화가족들은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 강화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여성가족부, 2022).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대표사업으로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서비스이다. 특히, 한국 입국 5년 이내인 적응 초기에 육아 및 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에 내방하여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센터와 지역사회, 다문화가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에 개입하여 결혼생활과 한국문화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방문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한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생활언어 습득·문화이해를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부모 교육 서비스는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생애주기

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서비스를 지원한다. 셋째, 자녀 생활 서비스는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 도모를 목표로 한다. 학업성취가 낮고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 및 상담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2). 운영방식은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1:1로 한국어교육, 부모 교육 및 자녀 생활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타 지원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운 한국 이주 초기에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방문 교육지도사와 만난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을 방문하여 1:1로 제공하는 방문교육서비스는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의 언어·문화·교육을 통한 상호문화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통한 정체성 형성과정에 개입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처럼 방문교육서비스는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한국 적응을 돕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실생활 및 교육부분을 지원하여 문화 적응과정에서 겪는 심리·정서적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는 등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능의 역할을 넘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며 상호문화소통과정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여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과 의미를 지닌다.

2. 상호문화소통과 정체성

후설(Husserl)은 타자를 나와 동질적인 존재로 이해하며, 타자성을 주체가 접근할 수 없는 타자의 고유한 경험이자 주체에 의해 선형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대상이라 하였다. ‘나의 이성적 판단이 올바르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자 또한 나와 같이 판단한다’고 전제하며 타자를 온전한 주체로 인정하는 상호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장한업, 2016). 이를 위해서는 감정이입이라는 윤리적 태도가 중요한데 감정이입은 ‘여기(Hier)’에 있는 자신을 ‘저기(Dort)’에 있는 타자로 옮겨 가는 것이다(박인철, 2015). 즉,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감정이입하는 윤리적인 실천으로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 간의 해석과 소통이 가능해지고 상호문화성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소통을 이루게 된다(Mall, 1996).

상호문화성이란 ‘문화와 문화 간의 접촉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 문화의 변화, 문화 사이의 동등한 상호작용으로 공통의 문화적인 표현형식을 창

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박인철, 2010). 이는 사회공동체에서 나 외에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최승은, 2019).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접촉이나 교류 차원을 넘어 함께하는 문화 속에 있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특성과 내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김태원, 2012). 문화 간 내적 연관성을 이루는 과정은 특정한 문화를 흡수 또는 배제하여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가 가지는 다양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관용의 태도를 취하며 서로의 문화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성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윤리성과 타자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 의식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가 단순히 공존하는 외적 연대 개념이기보다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관계를 맺고 각자가 또 다른 문화와 관계하는 수평적 관계 맺음이라 할 수 있다(최재식, 2006).

압살라-플렛사일(Abdallah-Pretceille, 1999)은 수평적 상호문화소통의 관계 맺음을 집단성보다는 개별성에 기반을 두었다. '상호문화적'을 '교차문화간', '대조 문화'의 의미로 문화가 소통됨을 전제 하였다. 따라서 상호문화소통은 각 개인이 보유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이한 문화 사이의 의사소통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허영식, 2015).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한 개인 간 상호작용은 서로를 변화시키는 소통, 문화 간 경계와 장애물 인식, 나아가 이를 극복하려는 실천을 요구한다(김영순, 2020). 그러나 각 문화가 가진 다양성의 차이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문화 간 접촉과 충돌을 야기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상호문화소통은 상호문화 간 '완전한 일체성'이나 '극단적인 차이'에 대비되는 해석이 아닌 문화가 중첩된 부분의 공통점과 차이를 이해·소통·번역하며 접침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장한업, 2016).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타인과의 다양한 만남과 관계 맺음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실천 또한 가능해지는 것이다(이병준·한현우, 2016; 정기섭, 2011).

홀츠브레허(2014)는 인간의 일상적인 현실 차원에서 상호문화소통을 설명하며 한 문화권 내 구성원 간의 '만남'과 '관계'가 역동성의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역동적인 상호소통은 '나의 것'과 '낯선 것'이 동시에 뒤섞이고 표현되며, 이러한 '낯선 것'과 접촉하는 자신의 지각모델에 따라 각기 다른 성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찰은 비단 타인과 낯선 것에 대한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상호문화 소통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와 환경을 창출하는 생산자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수이건 다수이건 각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와 환경을 창출하는 생산자는 그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상호문화소통의 과정에서는 나와 타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바라보는 시각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최승은, 2019). 상대의 문화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 타 문화를 배우려는 개방적이고 평등한 관계 추구의 자세,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에 공감하고 상호작용하며 협력하게 된다(조용길, 2015). 이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게 된다.

그리핀(Griffin)은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정신과 태도는 본질적인 동시에 사회 속에서 나와 타자가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환경의 변화 및 접촉하는 대상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자아개념을 변화시켜 나가며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하였다(강준만, 2018). 미드(Mead)는 인간을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영향에 반응하는 역할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타인과의 접촉과 만남을 통한 상호작용과정에서 타인의 문화에 대해 정의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존재라 하였다. 이러한 능동적인 사회적 행위를 통해 인간은 정신과 자아가 창출되며 정체성을 이룬다(이성식, 1995). 즉,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와 타자가 서로의 고유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며 상호문화 소통하는 사회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상호문화 소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호문화소통은 집단성보다는 개별성에 기반을 둔 수평적인 관계맺음, 한 문화권 내의 만남과 접촉을 통한 역동적 동기부여가 요구된다.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정신과 태도는 본질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 개인은 타인과 문화에 영향받으며 자아개념을 변화시키는 유동성과 타인의 문화에 대해 정의와 해석을 내리며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이 속한 개인 및 사회관계 안에서 상호문화 소통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며 능동적인 사회적 행위를 영위한다면 자신의 정신과 자아를 창출하며 정체성을 확립함을 알 수 있다. 즉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능동적인 사회적 행위가 중요하다(이성식, 1995).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복지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 이들을 수혜의 대상인 약자로 규정하여 복지서비스 정책 및 지원의 실효성과 교육의 효율성 강화를 주장하였고(이귀애, 2016; 이오복, 2019), 다문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을 통한 정착과 성장의 과정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밖에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이 개인에서 공동체와 사회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경험과 양상을 상호문화관점에서 고찰하여 주체성을 형성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김영순·김도경, 2022; 봉진영·권경숙, 2013).

결혼이주여성들은 많은 부분에서 상호문화소통역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김영순·김도경(2022)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참여공동체 내에서 거주국과의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 갈등의 해결을 위한 상호문화소통과정에서 자신을 수혜 대상의 이주민이 아닌 상호문화소통의 주체로 상정하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참여했던 공동체 내에서 상호소통을 반복하며 개인 영역에서 타인 삶 영역으로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경험의 형태들은 결핍의 기억을 가진 이주민의 정체성을 넘어서 상호문화소통 과정을 통해 상호연결을 이루며 주체성을 생성한 타자되기의 실천적 공존의 윤리를 이어가는 생성 과정의 반복을 통해 다문화 생활세계에 요구되는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였다(김영순·최수안, 2022).

이 밖에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및 결혼이주자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문화시민의 확장된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초국적 정체성 형성에 따른 상호문화 실천과 임파워먼트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주류사회로부터 타자화된 대상이 아닌 주체성을 지닌 존재임을 규명하며 다문화 생활세계 내에 지속 가능한 통합사회를 준비하는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였다(김경숙, 2014; 김기화, 2022). 위의 연구를 통해 상호문화소통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다양한 함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자조 모임 및 공동체 경험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는 동일 문화권 간의 상호문화성 탐색과 상호문화소통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과 정주민의 문화와 언어의 뒤섞임과 겹침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상호문화소통 과정의 양상을 통해 형성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과정

본 연구는 방문교육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관점에서 상호문화 소통의 주관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정체성 변화의 특징과 양상을 탐색하기 위

해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Gomm, Hammersley and Foster, 2000). 결혼이주여성의 방문교육서비스 경험은 특정 사례라는 경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제한성이 있다. 사례를 통해 방문교육서비스에서 상호 문화 소통이라는 구체적인 현상을 살펴보게 된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면담에서 나타난 정체성 변화의 실천적 현상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구체성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Yin and Davis, 2007). 이 밖에 방문교육서비스 과정에서 어떠한 정체성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살펴보는 현재성의 측면도 나타나므로 사례연구로서의 적절함을 보인다.

이를 위해 수도권 I 시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1차로 방문교육지도사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2차로 연구자가 개별 문자와 전화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 의사를 재확인 후 건강상의 이유로 동의하지 않은 1인을 제외하고 최종 5명을 확정하였다.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3차로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목적을 재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 철회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2차 심층 면담을 마친 후 소정의 선물과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2022년 4월~5월에 걸쳐 진행된 심층 면담은 자택 및 자택 인근 카페 등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여기는 장소와 시간에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한 명당 2회씩, 1회당 1시간 30분~2시간 내외로 총 10회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 과정개요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자료수집 과정 개요

구분	1차 면담	2차 면담	장소
	일시 및 면담시간	일시 및 면담시간	
연구참여자 A	22.4.26(화) 1시간 30분	22.5.16(월) 2시간	자택
연구참여자 B	22.4.27(수) 1시간 30분	22.5.18(수) 2시간	자택
연구참여자 C	22.4.27(수) 2시간	22.5.17(화) 2시간	자택
연구참여자 D	22.4.29(금) 2시간	22.5.20(금) 2시간	자택인근 카페
연구참여자 E	22.4.29(금) 1시간 30분	22.5.24(화) 2시간	자택인근 카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을 심층 면담한 내용을 질적 내용 분석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1차면담은 개방적 질문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 전반의 이야기와 이주를 결심하게 된 배경 등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정착 과정에서 경험한 방문교육서비스 경험의 내용을, 2차면담은 1차면담에서 부족했던 방문교육서비스의 경험을 통한 정체

성의 변화 등을 위주로 보완하여 면담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량은 1차 A4 용지 78장, 2차 A4 용지 84장으로 총 A4 용지 162장이다. 수집된 자료의 구분과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자료의 구분 및 내용

구분	내용	분량
1차 자료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전 이야기와 이주를 결심하게 된 배경 등 결혼 전·후 정착과정을 방문교육서비스 경험을 중심으로 면담	A4 78장
2차 자료	방문교육서비스의 경험을 위주로 정체성 변화 등 1차면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면담	A4 84장

결혼이주여성과의 면담은 질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나 질문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면담을 이어 나갔다. 기본면담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결혼이주여성의 기본 면담내용

기본 면담 내용	
방문교육서비스 전	결혼이주 초기 적응에서 어려웠던 부분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받은 도움
방문교육서비스 중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나와 가족의 변화된 부분
방문교육서비스 후	방문교육서비스 경험의 소감
	방문교육서비스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추가로 원하는 부분

자료의 분석 과정은 Braun & Clarke(2006)의 중심 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심 주제 분석 방법은 연구자들이 귀납적 논리를 기반으로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 내용 중 반복되는 패턴을 찾고, 주제를 내용 유형별, 위계별로 범주화하고 주제 간의 관련성을 찾아 해석하는 방법이다. 연구 참여자 5명에게 수집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단위 문장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의미 단위들을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범주화했다. 유사한 의미의 정보들을 동일한 범주 내에 위치시키고, 범주 내에서는 위계별로 구분하여 범주 간 독립성과 배타성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범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자료의 해체와 분석과정을 반복하고 범주를 재구조화하였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공동연구자 및 연구팀의 정례 세미나에서 자료의 삼각 검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맥락해석의 측면에

서 “왜”, “어떻게?”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방문교육서비스 경험을 살펴보고 이들의 정체성 변화를 상호문화소통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체성 갈등, 정체성 안정, 정체성 확장의 단계에 따라 6개의 범주와 12개의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 I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할 방문교육 지도사업의 부모 교육 서비스, 자녀교육지원서비스, 한국어 지원 서비스 수혜 경험이 있는 5명의 결혼이주여성으로 이주 배경, 나이, 국적, 이주년도, 결혼 및 가족 사항, 학력 및 직업 등 기본정보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구분	나이	출신국	결혼 경로	이주 년도	결혼 기간	가족	학력	전/현 직업
연구참여자 A	30	중국	중개 회사	2016	6년	배우자, 1남	초졸	무직/주부
연구참여자 B	33	베트남	중개 회사	2019	3년	배우자 1남	대졸	관리직 회사원/ 주부
연구참여자 C	40	중국	지인 소개	2005	17년	배우자 1남,1녀	대졸	백화점 판매직/ 중국어 강사
연구참여자 D	41	중국	연애	2010	12년	배우자 2남	고교 중퇴	생산직 회사원/ 주부
연구참여자 E	51	일본	연애	2005	17년	배우자 3녀	대졸	영어 강사/ 일본어 강사

연구 참여자 A는 중국 출신으로 30세이다. 24세에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 후, 2016년 입국하여 득남한 결혼 6년 차 주부이다. 중국에서 초등 졸업의 학력이었으나 한국에 입국 후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이고, 한국어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구사한다. 결혼 초기 시부모님과의 양육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빚고 현재는 분가하였다. 남편은 현장직 공무원으로 연구 참여자 A는 남편의 지지를 받으며 대부분 집에서 공부하며 지내고 있다.

연구 참여자 B는 베트남 출신으로, 33세이다. 대졸 학력으로 회사생활을 하다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편과 결혼하여 2019년에 한국에 입국한 결혼 3년 차 주부이다. 개인 사업가 남편과 만 2세 아들이 있다. 입국 직후

Covid-19로 외부 활동을 거의 못 하고 본국 가족도 한국에 방문할 수 없어서 고립된 생활로 외로움을 호소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한국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선호하며 대면 수업에 대한 욕구가 크다. 장래 직업으로 여행 안내자를 희망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중국 출신으로 40세이다. 대학 졸업 후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다가 1998년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2005년에 결혼하였다. 현재 한국에 거주한 지 17년으로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구사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한국에서 공장 운영과 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착 과정을 거쳤다. 가족은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과 초등학교 딸이 있으며 중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생 아들의 심리·정서와 입시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희망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중국 출신으로 40세이다. 중국에서 한국계 전자 회사근무 당시 남편과 만나 연애결혼을 하였고, 2010년에 자녀의 학업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지 12년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 D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한국어가 유창하지는 않다. Covid-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 시댁과의 갈등 및 코로나 감염 후유증으로 기억력 감퇴, 우울감, 불안 등, 심리·정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를 다짐하며 향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일본 출신으로 50세이다. 남편과 연애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일본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였고 한국에서는 일본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언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불편감이 적다. 한국 입국 초기에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당해 심한 우울증을 앓았으나 방문교육지도사와의 만남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여 정착에 용기를 얻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위에 다문화가정 자녀 상담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IV.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변화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로 정체성 갈등, 정체성 안정, 정체성 확장의 3단계에서 6개의 범주와 12개의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입국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상호문화소통하며 경험한 정체성 변화과정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에 따른 정체성 변화과정

단계	범주	소주제
정체성 갈등	존재감 없는 이방인	언어와 문화 이해부족으로 인한 소외
		나를 표현할 연결고리가 없는 고립
	불평등한 지원의 대상	무용지물 같은 '나'에 대한 불안
		'심리적 유아'를 경험하는 무능함
정체성 안정	언어와 문화로 스며들	언어와 문화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갈등
		자신의 힘으로 단계적 목표달성
	동등한 관계맺음	모방을 통한 적응과정의 변화
		나만의 가치관을 통한 관계 형성
정체성 확장	새로운 나로서의 삶	정체성 형성과 역량발휘의 관문도전자
		모국어와 문화를 전수하는 엄마
	배움 실천의 사회구성원	이주민과 정주민의 디딤돌로 자리매김
		수혜대상에서 주체적 역량제공자

1. 존재감 없는 이방인

후설(Husserl)은 타자를 나와 동질적인 존재로 이해하며, '나의 이성적 판단이 올바르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자도 나와 같이 판단한다'고 전제하며 타자를 온전한 주체로 인정하는 상호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장한업, 2016). 그러나 타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은 상호문화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인의 정체성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유동적으로 자아개념을 변화시키게 된다(강준만, 2018).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이주 초기에 이러한 상호문화 소통의 제한으로 정체성 확립에 갈등을 겪었다.

1) 언어와 문화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외

한국 사회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과 언어와 문화에 대한 준비 없이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의사를 한국어로 표현하지 못해 정서적인 위축감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정주민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는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애기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병원에서 애기 계란 먹을 수 있다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 바로 말이 안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웃었어요.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못 했구나.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공부하려고 결심했어요. (연구 참여자 B)

2) 나를 표현할 연결고리가 없는 고립

결혼이주여성과 정주민이 서로를 동질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감정이입의 윤리적인 실천(Mall, 1996)의 상호작용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단순한 호기심만 일으킬 뿐 상호문화소통의 핵심인 역동적이고 쌍방향적인 상호소통을 통한 문화 간의 해석과 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을 개방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린이집에 외국 엄마들 거의 없어요. 한국 엄마들은 그냥 ‘집이 어디야? 여기서 집이 어디냐고 전세야? 월세야?’, ‘남편이 뭐해?’, ‘직업이 뭐예요? 이런 것만 물어봐요,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연구 참여자 A)

2. 불평등한 지원의 대상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생활은 단순히 언어와 문화의 접촉을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인 가족들과 상호 문화 소통하기 위해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가치관을 존중하며 문화 속에 있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특성과 내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김태원, 2012).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입국 시 사전지식 없이 막연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던 한국의 언어와 문화는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으로 해석하는 자아개념을 가졌다.

1) 무용지물 같은 ‘나’에 대한 불안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입국 직후 한국문화와 언어를 다양하게 접촉하고 배우지 못해 부적응한 고립 상황을 불안해하였다. 이후 방문교육서비스를 경험하며 방문교육지도사와 직접 상호작용하고 실제적인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 나가는 것에 안도하였다.

저는 한국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우고 왔어요. 3개월 배웠는데 여기 오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 선생님한테 발음을 많이 고쳐줬어요. 이걸 책으로 배우는 거 말고 진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발음도 고치고 하는데 말하기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얼굴 보는 게 좋아요. (연구 참여자 B)

2) '심리적 유아'를 경험하는 무능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입국 초기 가족 외에는 접촉이 거의 없는 단조롭고 폐쇄된 생활을 하며 '심리적 유아' 상태인 자아의 무능함을 고백하였다. 이후 방문교육지도사와의 만남을 통한 상호소통에서 직·간접으로 문화와 언어에 영향을 받으며 자아개념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아기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한국말도 모르는 것처럼 남편하고 같이 다녀야 되고 그럴 때 조금 나는 한국에 와서 바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갈 곳 없어서 혼자 놀이터에 있었고, 내가 이분 말고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 계속 돌이만 만나서 한국어 공부하고 선생님 오늘 너무 속상한 일 있었어요.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풀어야지. (연구 참여자 C)

3. 언어와 문화로 스며들

문화 다양성을 이해할 때 상호문화소통은 문화가 중첩된 부분의 공통점과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번역하며 겹침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장한업, 2016). 결혼이주여성과 방문교육지도사는 서로의 문화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상호작용하였다. 이때 겹쳐지며 생기는 문화의 공통과 차이의 역동적인 상호소통에서 '나의 것'과 '나눠진 것'이 동시에 뒤섞여 표현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때 결혼이주여성은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한 학습과 돌봄으로 '나눠진 것'과 접촉하는 자신의 지각모델에 따라 자기성찰을 이루었다. 이처럼 한 문화권 내 구성원 간의 만남과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역동성은 상호문화 소통의 동기가 되어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홀츠브레허, 2014). 이는 문화와 환경을 창출하는 능동적인 정체성 형성의 과도가 되었다.

1) 언어와 문화의 접촉에서 빚어지는 갈등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 간 언어와 문화의 갈등은 아이의 양육 과정 등 생활 전반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났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유·무형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8시간 수업이 받아야 해요. 시부모님이 아기를 봐요. 아기한테 자주 찬물 줘요. 중국은 찬물 같은 거 잘 안 주고 어렸을 때 워낙 대장은 너무 작아서 따뜻한 물 주는데 이런 거 때문에 시부모님이랑 제일 힘들었어요, 아기 분유 먹을 때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주 먹이니? 하고 찼어요. 혹시 배가 고플까 봐 이만큼 줘야 돼요. 아기가 배가 고팠어요. 자주 울었어요. (연구 참여자 A)

2) 자신의 힘으로 단계적 목표 달성

결혼이주여성은 방문교육서비스 외에도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살기 위해 도움이 된다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였고 목표를 설정하며 배움을 이어갔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저는 방문교육서비스 끝나고 지금은 공인중개사 공부해요. 한국말로 하는 건 사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보고 이해하는 만큼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외로워서 미칠 때 미칠 때, 하늘 보고 아니면 핸드폰 보고 아니면 잠 좀 하고 지금은 2016년에 와서 6년 정도 지났지만 계속 공부할 때예요. (연구 참여자 A)

4. 동등한 관계 맺음

결혼이주여성은 방문교육서비스를 경험하며 자신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교육을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요청하고 협의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와 결혼이주여성의 상호작용은 일방적이고 경직된 교육 제공이나 무조건적 순응의 태도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의 마음, 타문화를 배우려는 개방적 태도로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안을 만들며 실천적 역량이 강화하였다(조용길, 2015). 이러한 상호문화 소통의 과정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 모방을 통한 적응과정의 변화

결혼이주여성들은 방문교육서비스를 경험하며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었고 방문교육서비스 과정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갔다.

처음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책만 공부해요. 하지만 선생님 너무 착해서 이거저거 다 이야기하고 지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왔고 어떻게 말하는지가 필요하니까요. 내가 모르는 게 많았으니, 내가 필요하니까. (연구 참여자 D)

사회 통합 배운 후에 저는 좀 한국 사람처럼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알아서 좀 창피하지 않아 한국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서 자극받지 않았어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받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자신감도 좀 들고. (연구 참여자 B)

2) 나만의 가치관 성장을 통한 관계 형성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적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확신이 부족하여 조급함을 느꼈다. 그러나 방문교육서비스를 받고 지도사와의 관계에서 격려받고 지지받는 상호문화소통의 과정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능동적인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지지의 역할을 하였고 결혼이주여성에게 주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항상 제 생각이 한국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괜찮아, 지금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격려를 들었을 때 조금 안심이 되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자신감도 생겼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잘하고 있는 거 칭찬해 주면 자신감 나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도 되게 모르겠어요. (연구 참여자 D)

선생님 만나고 고졸 시험 볼 때, 밤늦게 책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기 밥을 주고 제가 죽을 정도로 피곤하고 책 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고 일어났어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돈이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 아들도,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만 있는데 그러려면 책,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연구 참여자 A)

5. 새로운 나로서의 삶

문화 간 수평적 관계 형성은 윤리성과 타자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간 내적 소통의 연대를 의미한다(이화도, 2011). 결혼이주여성은 입국 초기 이방인으로서 낯선 문화와 언어의 관문을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간은 타인의 문화에 대해 정의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정체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은 단순하게 영향 받는 대신 사회적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정신과 자아를 창출하며 정체성을 이룬다(이성식, 1995). 따라서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사회적 행위가 요구된다. 이때, 방문교육서비스는 교육지원이라는 목표 외에도 방문교육지도사와 결혼이주여성 및 상호문화소통을 하며 수평적 관계 맺음으로 내적 소통의 연대를 이루었고 결혼이주여성은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1) 정체성 형성과 역량 발휘의 관문 도전자

결혼이주여성은 방문교육지도사가 제공하는 교육지원을 수혜자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내적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과 한국 사회의 구성원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도전하는 자아개념으로 정체성을 성장시켰다.

선생님들은 한국 분들이 갖고 계시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를 전달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 자체가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겪어 봐야지 한국 문화에 조금 만졌다가나 스쳐 지나갔다가나 그런 느낌이 와요. 그게 이해가 돼야지 나도 한국에 살고 한국 문화가 좋겠다는 실감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한국에서 살아가는 자신감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못 느꼈을 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지 못해요. (연구 참여자 E)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생각해요. 공부가 힘이에요. 나중에 아들이 크면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기본 건 제가 이거 보고 합격했어요.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 못할 정도로 좋아요. 제가 노력해서 이거 따는 거 너무 기뻐요. 제가 아기 키우면서 이것도 배우고 자격증 따고 너무 힘들지만, 제가 이 일을 거쳤어요. 이 좋은 결과를 받아 봤고 그 과정을 너무 힘들지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기뻐요. 우리 시아버님도 우리 며느리 중국 사람이지만 좋은 직장 취직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우리 손자 잘 키워요.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A)

베트남 친구 저한테 전화해서 처음 물어봤어요. 결혼했는데 싸우고 맞는다는 그런 소문 들으면 조금 속상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라. 그 부부는 자주 싸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서는 내가 통번역 같은 거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어요. 나도 알게 됐어요. 알수록 생활도 편해요. 알수록 생활이 더 편해요. 예전에는 남편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한 번씩 싸웠는데, 지금 한국어 좀 알아서 대화 점점점점 늘어나 그럼 요즘은 별로 싸울 일이 없어 무슨 일 생겨도 남편이랑 그냥 같이 결정해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결정할 수도 있고 집안일을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연구 참여자 B)

2) 모국어와 문화를 전수하는 엄마

결혼이주여성은 입국 초기,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부정하거나 자녀에게는 전수하지 않으려던 모습에서 방문교육지도사와의 상호문화 소통을 통해 양 국가의 문화에 대한 공통점·차이점을 이해하고 혼란을 겪지 않으면서도 한국문화에서 수평적인 공존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모국 언어와 문화를 전수하였다.

처음엔 아이가 제게 물어보는데 내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몰라 그냥 사진 보라고 중국말로 알려줬어요. 그때 많이 슬펐어요. 제가 아이한테 좋은 거를 가르쳐 주는지 안 주는지 때문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씨도 중국말로 아이한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라고 말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기가 잠깐만 헛갈리지만, 나중에 크면 다 알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계속 중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A)

지금 와서 제가 지금 제일 후회한 거 사실 엄마 나라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몰랐어요. 저는 첫째 아이한테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한국말을 너무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아무 말도 잘못해요. 아이가 한국말 못할까 봐 한국말 가르치고 중국어는 안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와서 그냥 아이한테 엄마 말 가르쳐줘라 하고, 그래서 둘째는 처음부터 엄마 말을 가르쳐줬어요. (연구 참여자 D)

6. 베를린 실천의 사회구성원

상호문화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음과 다름,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성격을 띠는 다양한 문화의 뒤섞임 속에서 공존하는 구성원들에게 각 개인이 보유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상이한 문화 사이의

의사소통을 강조한다(허영식, 2015). 결혼이주여성들은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배우고 경험한 역량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이주민과 정주민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목표설정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1) 이주민과 정주민의 디딤돌로 자리매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자신의 모국에서의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역할과 역량 간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요즘은 취업에 대해 생각해요. 지금 한국어 토픽 공부하고 싶거든요. 공부하면 뇌가 점점 좋아져요. 이렇게 주부로 가만히 있는 게 왠지 좀 아쉬워요. 나중에는 여행가이드도 되고 싶어요. 저는 대학도 나왔고 회사에도 다녔었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저 생각에 아마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에 아마 여행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B)

처음 한국 와서 선생님이 나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지금은 제가 통역도 하는데 단순한 통역 아니고 조언 많이 해요. 한국 온 지 1, 2년 된 사람들. 집에서 뭐 하나고 하나까 그냥 논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당신 한국어 배울 수 있으면 빨리 배우고 다문화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가고 그다음에 무조건 많이 나가서 배우라고 여기서 살려고 하면 그리고 또 나처럼 나중에 학생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조언 진짜 많이 해요. (연구 참여자 C)

2) 수혜 대상에서 주체적 역량 제공자로

결혼이주여성은 점차 한국 사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역할에 도전하고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바꾸어 나갔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정체성과 행위를 결정하게 되었다

제가 우울증이 깊었을 때 선생님 앞에서 웃으려고 힘냈어요. 지금은 일본어 강사 하구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집 있고 좋은 직장이고 일을 안 해도 되는데 힘들어요. 지금 아이들이 미쳐가요. 자살 시도하기도 하고 부모하고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 아이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가정폭력 상담사 자격이 있어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을 상담했어요. 아이들이 공감이 되고 내 아이 같은 거예요. (연구 참여자 E)

V. 결론

본 연구는 방문교육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이 방문교육지도사와 상호문화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교육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교육제공과 정보 전달 기능에서 나아가 문화와 언어의 뒤섞임과 접침의 상호소통과 정체성 발달을 위한 장으로 의미가 있었다. 언어와 문화가 낯설고 안정적인 적응을 이루지 못한 한국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 and 방문교육지도사의 만남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한국 문화를 접촉하는 상호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한국 입국 초기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이 집단성보다는 개별성에 기본을 둔 상호문화소통의 핵심인 역동적이고 쌍방향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맺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주민의 가정으로 찾아간 방문교육지도사와의 1:1 만남에서 맞아들이는 소수자 이주민, 낯선 것에 접촉하는 정주민 방문교육지도사의 뒤섞임의 순환적인 교차문화를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주민인 결혼이주여성과 정주민인 방문교육지도사와의 만남과 관계맺음의 사회적 행위는 나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자아에 대한 개념과 행위를 결정하고 이전과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도록 영향을 주었다(이성식, 1995). 이는 김영순·최수안(2022)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자조 모임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상호소통을 반복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과 같다. 이밖에 손민호·조현영(2013), 신승혜(2015), 염지숙(2017), 원진숙 (2010), 최인이(2016)의 결과와 같이 개인·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문화·사회활동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며 소통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주민들 간의 상호문화접촉이 아닌 정주민 방문교육지도사와 이주민 결혼이주여성과의 상호문화소통을 통한 정체성 형성을 통한 주체성 발현이라는 점에서 더욱 실질적이고 확장된 의미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와 언어가 충돌하는 한국 가족과 사회 안에서 상호 소통하면서 혼란을 느끼며 위축되었다. 이는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방문교육지도사와의 개별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접촉을 통해 낯선 문화와 상호문화 소통의 과정을 경험하며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가 겹치고 뒤섞이며 표현되었다.

집단성보다는 개별성에 기반을 두고 문화가 소통됨을 전제로 하는 상호문화소통(Abdallah-Pretceille, 1999)을 위해 결혼이주여성과 방문교육지도사는 1:1의 만남에서 대화와 소통 등 개인 간 상호작용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언어 차이로 인한 경계와 장애물이 있음을 실제로 경험하며 이를 거부하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극복하는 실천적 차원의 상호문화소통을 이루었다(김영순, 2020). 결혼이주여성은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와 환경을 창출하는 생산자로 기능하였고 이러한 상호문화소통은 나와 타자의 문화 다양성으로 인한 공통점과 차이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타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아개념을 교정해 나갈 기회를 얻어, 자신이 누구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타자의 문화와 언어의 의미를 찾아가며 가족과 사회 안에서 이전의 정체성과는 다른 자아개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 내지 타자로 간주하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자녀에게는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전수하고 정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상호문화소통의 참여자이자 주체자로 정체성을 확장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는 디딤돌로 자리매김하며 정체성을 확장하였다.

방문교육서비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및 언어교육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행위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정주민과 이주민의 문화가 충돌하는 위기의 공간인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격려와 지지의 의미로 존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입국 초기에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위축되어 있었으나 방문교육지도사와의 수평적인 상호문화소통의 역동적인 경험은 자신의 지각모형을 변화시켜 성장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기회를 얻고 주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김영순·김도경(2022)의 결과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참여한 공동체에서 이해와 존중, 갈등 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을 수혜 대상의 이주민이 아닌 상호문화소통의 주체로 상정하며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이는 이주민 결혼이주여성이 정주민 방문 교육지도사와 상호문화소통하며 정체성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 간 충돌을 거쳐 사이의 문화 속에서 생성해 낸 주체성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경험할 수 없는 타문화와 세계관을 접하고 배우며 타자와 소통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 확장을 통하여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의 전환을 가져온다.

위와 같이 결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방문교육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과 정주민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소통하기 위해 문화와 언어교육 및 지원에서 이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반

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상호문화소통 체계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단순한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주체성을 지닌 동등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상호문화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한 상호문화성의 관점이 활성화된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적 실천 역량을 발휘하며 정체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정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언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한 인식 없는 일방적인 한국 문화 및 언어의 지식 전달 방편이 아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정주민과 이주민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전제로 하여야한다. 이러한 소통의 장이되는 상호 문화소통 기반 심리·정서지원 제공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나와 타자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존의 윤리가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준만(2018). “왜 사회적 행위가 정신과 자아를 창출하는가?_상징적 상호작용론 외”. 인물과 사상. 제239호. 47-81.
- 김경숙(2014). “한국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 : 상호문화주의적 조망과 함의”.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9호. 21-33.
- 김기화(2022).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연구 : 상호문화실천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IDI도시연구. 제2권 제1호. 45-89.
- 김미중·김태임·권윤정(2008). “여성 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 행위와 피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4권 제4호. 323-332.
- 김연희·이교일(2017). “초국적 삶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전환경험과 미디어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 아시아여성연구. 제56권 제1호. 107-153.
- 김영순(201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론. 제10권 제3호. 36-96.
- 김영순(2020).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과 정체성협상. 서울: 북코리아.
- 김영순·김도경(2022).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한 자조모임 공동체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5권 제2호. 5-37.
- 김영순·최수안(2022).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6권 제1호. 127-174.
- 김태원(2012).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유럽사회문화. 제9호. 179-213.
- 박인철(2010). “상호문화성과 윤리-후설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철학. 제103호. 129-157.
- _____(2015).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파주: 아카넷.
- 봉진영·권경숙(2013). “부모교육지도사의 다문화가정 방문지도 경험의 의미 탐색”. 교육연구. 제56호. 69-105.
- 설진배·김소희(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정체성 = 한국 생활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0권 제3호. 229-260.
- 손민호·조현영(2013). “일반논문 :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학습경험에 따른 정체성 구성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 교사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9권 제3호. 141-173.
- 신승혜(2015). “결혼이민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방안”.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33-60.

- 심영희(2011). “기획특집: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정체성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장의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 연구”. *비교한국학*. 제19권 제1호. 7-44.
- 여성가족부(202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에서 2023.1.6. 인출
- 염지숙(2017). “영아기 자녀를 둔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을 통한 정체성 형성”. *유아교육학술집*. 제21권 제2호. 307-327.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제43권 제3호. 61-83.
- 원진숙(2010). “삶을 주제로 한 자기 표현적 쓰기 경험이 이주 여성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국어 쓰기 교육 사례 연구”. *작문연구*. 제11호. 137-164.
- 응포친(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참여 경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박창재(2009).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경제성 분석”. *가족과 문화*. 제21권 제4호. 119-143.
- 이귀애(20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결혼이주여성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필요도*.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준·한현우(2016). “상호문화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제11권 제6호. 1-24.
- 이성식(1995). “역할담당 감정으로서의 수치심과 청소년 비행: 상징적 상호작용 모델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9호. 617-649.
- 이오복(2019). “다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유형 연구”. *인문사회* 21. 제10권 제6호 395-410.
- 이정애·최은경(2019).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정체성, 자본, 이데올로기”. *다문화와 평화*. 제13권 제2호. 107-125.
- 이진경(2014). “다문화가정 방문 한국어교육지도사를 위한 보수교육 방안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75권. 485-508.
- 이춘호·임채완(2014). “결혼이주여성의 다중적 정체성과 세력화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5권 제3호. 91-116.
- 이화도(2011). “상호문화성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의 이해”. *비교교육연구*. 제21권 제5호. 171-193.
- 장한엽(2016). “상호문화교육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고찰-상호주관성과 상호문화성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21권 제2호. 33-54.

- 정기섭(201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본 상호문화역량”.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6권 제3호. 133-149.
- 정신희(2018). “방문교육지도사들의 경험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정책의 돌봄관리 체계”. *여성학논집*. 제35권 제2호. 201-232.
- 조용길(2015). “‘상호문화성 Interkulturalität’ 배양을 위한 토론교육 방안”. *독어 교육*. 제62권 제62호. 81-102.
- 천혜경(2022).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과정에 관한 모형-베트남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12호. 107-142.
- 최승은(2019).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관계에 관한 상호문화적 해석”. *문화교류연구*. 제8권 제2호. 143-168.
- 최인이(2016).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정체성형성 -대전지역 결혼이주 여성의 직업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담론*. 제19권 제1호. 5-44.
- 최재식(2006). “상호문화성의 현상학: 문화중심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주의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30호. 1-30.
- 행정안전부(2022.10.7.).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2.10.7. 인출
- 허영식(2015). “문화적 차이, 다양성에 관한 담론과 함의: 독일과 유럽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논총*. 제25권 제3호. 169-194.
- 홀츠브레허(2014).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정기섭 외 (역). 성남: 북코리아(Holzbrecher, A, *Interkulturelle Pädagogik*, Berlin: Cornelsen, 2004).
- Abdallah-Pretceille, M.(1999). *Diagonales de la communication interculturelle. Sankt Augustin, Germany: Anthropos Research & Publications*.
-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Gomm, R., Hammersley, M & Foster, P.(2001). *Case study method : Key issues, Key texts*. Thousand Oaks, CA: Sage.
- Mall, R. A.(1996). Was heisst ‘aus interkultureller Sicht?’ in *Ethik und Politik aus interkulturelle Sicht*, hrsg. von R. A., Mall und N. Schneider, Amsterdam-Atlanta, GA.

Yin, R. K., and Davis, D.(2007). “Adding new dimensions to case study evaluations: The case of evaluating comprehensive reforms.” *New Directions for Evaluation*, (113), 75-93.

Abstract

A Qualitative Research on Marriage Migrant Women's Identity Change with Visiting Education Experience

Hyunjoo Seo*·Youngsoon Kim**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identity formation through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experiencing visiting educational services(VES). For the purpose of researc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5 married immigrant women participating in VES, data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through subject analysis. The study results are 'strangers without a sense of existence', 'objects of unequal support', 'touch each other with language and culture', 'establishing equal relationships', 'my new life', and 'practicing a life of sharing'. They experienced mixing cultures and languages in VES and forming independent identities. They played the role of equal members of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independent identities. As a follow-up study, it proposed support for psychological, emo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that reflect their perspectives and needs so that marriage migrant women can demonstrate their independent practical abilities and expand their identity.

Keywords : Visiting educational service, Marriage migrant wome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dentity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Inh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Inha University